

코와 입만 가리는 물건: 마스크의 역사와 인류학을 향해*

스미다 도모히사(住田朋久)[†]

2020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확산해가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나 의료인, 혹은 환자에 접촉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나 지역이 있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나 질병관리예방센터(CDC) 등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 여태까지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모양의 마스크를 써 왔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환자, 의료인, 그 외 사람들의 마스크의 역사를 다룰 것이다.²⁾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0.42.3.745>

* 편집자 주: 이 글은 스미다 도모히사, “코와 입만을 가리는 물건—마스크의 역사와 인류학을 향해(鼻口のみを覆うもの—マスクの歴史と人類學にむけて)”, 『현대사상(現代思想)』 48권 7호 (2020), 191-199를 원 투고처의 허락을 받고 번역한 글이다. 인명 표기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을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중 일본 문헌이 아닌 경우는 가능한 한 원저로 대체하였다.

[†]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 sumidatomohisa@gmail.com

¹⁾ 감염이 확대되어 가던 2020년 4월 3일, CDC는 방침을 변경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먼 커버(cloth face coverings)의 착용을 권장했다. (<https://twitter.com/CDCgov/status/1246208612722192385>).

²⁾ 필자에게 조언해 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좋겠지만, 특히 조사 초기에 조언해주셨던 구스카와 사치코(楠川幸子), 히로노 요시유키(廣野喜幸), 조사와 집필에 협력해주셨던 가미무라 다이치(上村大地), 다카하시 사기노(高橋さきの), 츠루타 소토(鶴田想人) 씨에게 감사드린다. 『화분증 환자회(花粉症の患者會)』를 읽고 마스크에 대한 글을 써볼 것을 제안해주신 무라카미 유리코(村上瑠梨子) 씨의 재치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본고의 보충 정보는 웹 사이트 “마스크의 역사와 인류학”에 수시로 추가하고 있다.

(<https://sites.google.com/view/hamask2020>). 마스크의 문화사를 다루는 선행연구는 호리이 미츠토시(堀井光俊)의 『마스크와 일본인(マスクと日本人)』(秀明出版會, 2012)을 제외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음의 연구에서도 마스크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Nancy Tomes, *The Gospel of Germs: Men, Women, and the Microbe in American Life* (Harvard

1. 레스퍼레이터(呼吸器, 호흡기)

일본에서 마스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79년 2월의 광고대[그림 1]³⁾ “레스퍼레이터(呼吸器, 호흡기)”⁴⁾ 색은 검은색으로 보인다. 입만 덮는 것(오른쪽)과 코와 입을 모두 덮는 것(왼쪽) 두 종류가 있다. 광고에는 안쪽에 금속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점, 일용품이며, 질병의 예방을 위한 물건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즉 의료 종사자나 환자 대상의 물건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것임이 강조되어 있다.



그림 1 이와시야 마츠모토 이치자에몬(松本市左衛門), 『호흡기 광고(呼吸器廣告)』(1879).

University Press, 1999); Virinia Smith, *Clean: A History of Personal Hygiene and P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 미야타케 가이코츠(宮武外骨) 편, 『문명개화 2 광고편(文明開化 二 廣告篇)』(半狂堂, 1925), 69; 이시이 겐도(石井研堂), “마스크의 기원(マスクの始)”, 『중보개정 메이지 사물기원 하편(增補改訂 明治事物起原 下)』(春陽堂, 1944), 1175-1176. 기타타마 약제사회의 웹 사이트에 히라이 다모츠(平井有) 씨가 수집한 마스크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https://www.tpa-kitatama.jp/museum/museum_o6.html).

4) 역주: 레스퍼레이터(respirator)는 인공호흡을 위한 장치 혹은 (연기나 가스 등을 차단하기 위해 쓰는) 마스크를 뜻한다. 저자는 레스퍼레이터를 호흡을 위한 기구인 호흡기(呼吸器)라는 단어로 번역해 제프리스가 개발한 마스크의 한 종류를 지칭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레스퍼레이터의 번역어로 ‘마스크’가 아닌 호흡기(呼吸器), 혹은 레스퍼레이터를 그대로 사용한다.

사실은 이보다 2년 전에 간행된 의료용품 카탈로그인 고쿠다이 주베이(石代十兵衛) 편집 『의술용도서(医術用図書)』에서도 같은 모양의 마스크 도판이 게재되어 있다. 또, 이 광고를 발행한 마츠모토 이치자에몬(松本市左衛門) 편 『의료기계도감(医療器械図譜)』(1878), 시라이 마츠노스케(白井松之助) 편 『의용기계도감(医用器械図譜)』(1886)에서는 그 명칭을 각각 “에후라이 씨의 숨 보호기 [エフライ氏の護息器(エフライス.レスピラート)]”, “제후레 씨 공기 여과기 [ジェフレー氏濾氣器(レスピラートル)]”로 표기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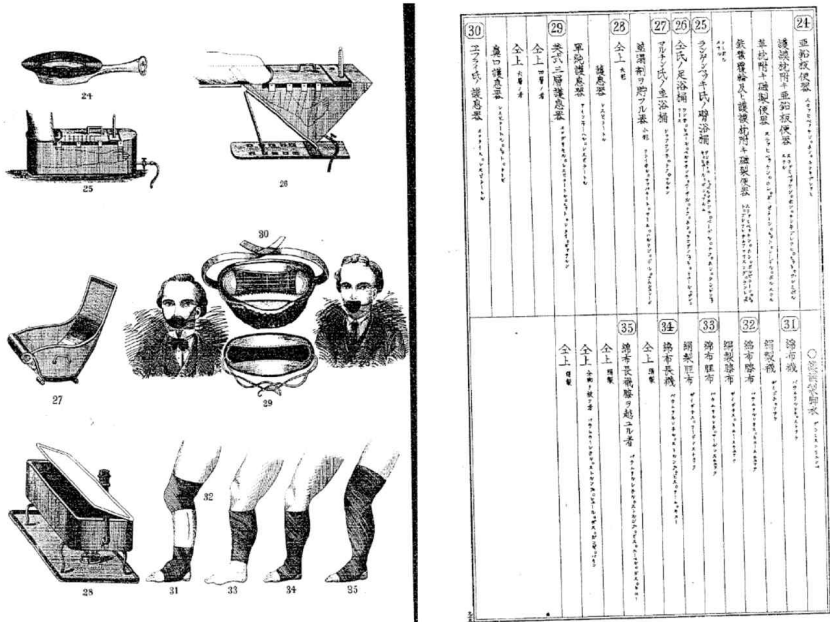


그림 2 마츠모토 이치자에몬 편, 『의료기계도감(医療器械図譜)』(1878).

이는 1835년 영국의 의사 줄리어스 제프리스(Julius Jeffreys, 1800-1877)가 “respirator(호흡기, 呼吸器)”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허를 취득하고 후에 발전시킨 물건이었다. 제프리스는 무엇을 위해 이 마스크를 개발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고대부터 마스크의 역사를 개관해보자.

2. 플리니우스, 아그리콜라, (그리고 다빈치), 『코도조로쿠(數銅図録)』

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 마스크의 뜻을 찾아보면 ‘가면’이라는 뜻이 가장 먼저 나온다. 가면은 얼굴 전체나 얼굴의 윗부분을 가리는 것이 대부분이나, 여기서는 현재 일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스크와 동일하게 얼굴의 아랫부분과 코, 입을 가리는 것으로 제한한다. 그렇게 한다면 난자의 머리 두건(頭巾)이나 이슬람의 니캅(niqāb)과 같이 머리 윗부분을 가리는 것은 제외된다. 또 의학사에서 유명한 17세기 이후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발견되는 페스트 마스크도 제외된다. 코와 입만이 아니라 눈 주위를 포함해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코와 입 부분만 가리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멘요로이(面鐵, 역주: 일본 갑옷 중 얼굴, 특히 눈 아래 부분을 덮는 것을 이르는 말), 중동 지역의 무희들이 쓰는 페이스 베일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선 제외해 두자.

얼굴을 가리는 물건 중 오래된 사례는 광업 분야에서 등장한다. 기원후 1세기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서는 진사(辰砂, 역주: 연단 鉛丹 또는 사산화삼납 Pb_3O_4)를 다루는 사람들이 동물의 방광을 사용해서 얼굴을 가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업장에서 진사를 연마하는 사람들이 방광으로 만든 부드러운 마스크를 얼굴에 댄다(faciem laxis vesicis inligant). 이렇게 하면 숨을 쉴 때 유해한 먼지를 들이쉬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막을 넘어서 물건을 보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⁶⁾

5) 호리코시 고헤(堀越耕平)의 만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僕のヒーローアカデミア)” (『주간소년점프』, 2014-)의 “히어로 인턴 편”(제14-18권)에 등장하는 사예팔재회(死穢八齋會)의 멤버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 치사키 가이(治崎廻)나 세츠노 도야(嵯野トウヤ)의 페스트 마스크가 코와 입만을 가리는데 이는 페스트 마스크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6) Pliny the Elder, *The Natural History*, vol. 6, translated by John Bostock and H. T. Riley, Taylor and Francis (1855), 123 (<https://books.google.co.jp/books?id=gzwZAAAYAAJ&pg=PA123>). 미우라 도요히코(三浦豊彦) 『노동과 건강의 역사 제7권: 고전적 금속 중독과 분진의 건강 영향의 역사(勞働と健康の歴史 第七卷 古典的金屬中毒と粉塵の健康影響の歴史)』 (勞働科學研究所出版部, 1992), 17.

이 방광막은 유해한 분진을 흡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눈을 가리고 있더라도 앞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림 3>은 1945년 미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실연된 모습이다.



그림 3 Mine Safety Appliances Company, "The Air We Breathe" (1945).
<https://catalog.archives.gov/id/46905>

같은 모양의 물건에 대한 묘사는 이후에 다물 아그리콜라의 『금속에 관하여 (De re metallica)』 (155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이센 지방(오늘날의 독일)의 알텐베르크의 광산에서는 검정색 한포진이 생기기 쉽다. 이는 상처 부위를 뚫고 들어가 골수까지 침범한다. 이는 철도 뚫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에 나무를 사용해야 하며, 물에 젖은 손발은 물론 폐, 장, 눈에도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광부들은 땅을 파기 위해 긴 장화와 장갑으로 몸을 가리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쓴다(uesicas laxas illigentfaciell). 마스크를 쓰면 기관지나 호흡기는 물론 눈으로도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로마에서도 연단 제조자가 같은 방법으로 몸을 가려 건강에 치명적인 먼지를 흡입하지 않도록 했다.⁷⁾

⁷⁾ Georgius Agricola, *De re metallica*, Translated from the First Latin Edition of 1556,

여기서도 코와 입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린다. 원문을 확인해보면 플리니우스는 “*laxis vesicis*”, 아그리콜라는 “*uesicas laxa*”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아그리콜라의 책에서는 마지막 문장이 누락되어 있지만, 영역판에서는 주석에서 플리니우스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⁸⁾

*De re metallica*의 도판 총 292장에 그려져 있는 수백 명의 사람 중 코와 입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도판을 비교하는 본문에서는 제련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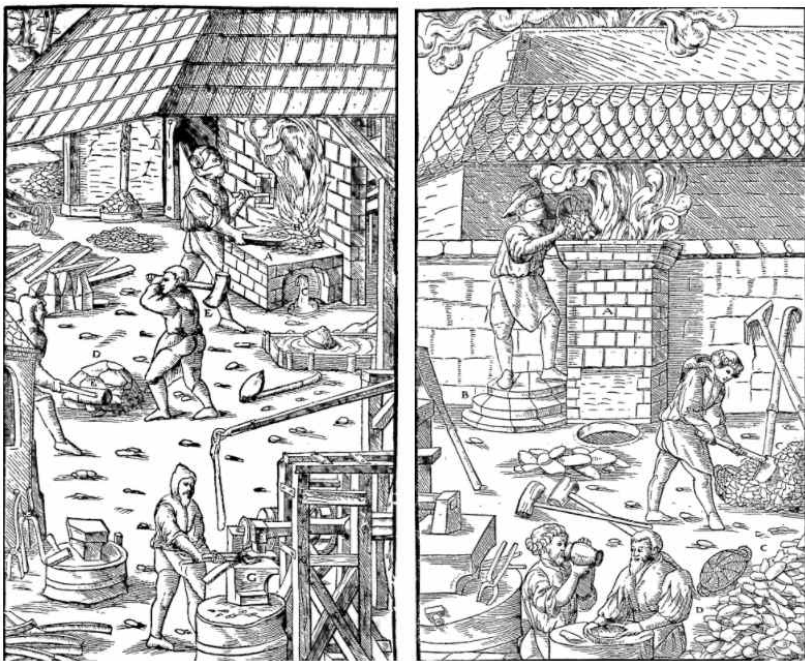


그림 4 Georgius Agricola, *De re metallica* (1556), 422(왼쪽); 424(오른쪽).

불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모자를 깊게 쓴다(*totma pileo tegat*). 이 모

translated by Herbert Clark Hoover and Lou Henry Hoover (Mining Magazine, 1912), 172 (<https://archive.org/details/georgiusagricolaoagrich/page/172>); 미우라, 앞의 책, 89.

⁸⁾ Agricola, *De re metallica*, 215, n22.

자에는 구멍(foramina)이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볼 수 있을뿐더러 호흡도 할 수 있다.⁹⁾

그림과 글의 묘사가 일치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련을 할 때에는 코와 입만이 아니라 (눈을 제외한) 머리 전체를 가린다는 점이다.

광업 이외의 분야를 살펴보면, 코와 입을 가리는 행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의 작업에서도 볼 수 있다. 군사기술자로도 활동한 다빈치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분말형 독을 깔리션에 뿌리기 위한 방법

[그림: 소쿠리 3개와 독을 뿌리기 위한 투석기]

적의 배를 향해 소형 견인투석기(mangonel)로 석회, 석황(石黃: 황화비소), 녹청(綠靑: 구리 녹) 분말의 혼합을 던진다. 숨 쉬면서 이 분말을 흡입한 사람은 모두 질식사한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 분말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는 얇은 천을 적셔(una sottile pezza bagnata) 코와 입을 가려 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배의 망대나 갑판에서 소쿠리를 종이로 덮어 발사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¹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에서는 벳시(別子)의 구리 광산 모습을 그린 『코도즈로쿠(鼓銅図録)』에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는 그림이 있다[그림 5].¹¹⁾ *De re metallica*의 도판과 마찬가지로, 제련 작업 등 불을 사용하는 작업자들만 코와 입뿐만 아니라 머리 부분까지 가리고 있다.

이처럼 *De re metallica*나 『코도즈로쿠』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다수의 광

9) Ibid., 421.

10) Edward Maccurdy, *The Notebooks of Leonardo Da Vinci, Vol. II* (George Braziller, 1958), 846 (<https://archive.org/stream/notebooksofleona027479mbp/#page/n223>).

11) 마스다 고(増田綱) 엮음, 니와 도게(丹羽桃溪) 그림, 『코도즈로쿠(鼓銅図録)』 1801년 무렵. (https://www2.dhii.jp/nijl_opendata/searchlist.php?md=id1&bib=200018375). 이밖에 일본의사학회 편 『도록 일본의사문화사료집성(図録日本医事文化史料集成)』 전 5권 (三一書房, 1978-1979)을 보면, 『이쿠노 은광 그림 모음(生野銀山繪巻)』의 “제련 그림(素吹きの図)”에 머리 앞쪽에 천을 걸치는 ‘얼굴 걸개(顔カケ)’가 그려져 있다.

산 노동자 중에서도, 제련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극히 일부만 코와 입을 가리고 있으며 대부분은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18세기 이전에는, 광산이 아니라면, 코와 입만을 가리는 물건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²⁾



그림 5 『코프도즈로쿠(鼓銅図録)』, 4쪽 앞(왼쪽), 4쪽 뒤(가운데), 6쪽 앞(오른쪽).

3. 제프리스의 호흡기, 복면(福面)과 복면(覆面)¹³⁾

코와 입만을 가리는 물건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세기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마스크 기록은 영국에서 1836년에 특허 받은 제프리스의 레스퍼레이터(respirator)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프리스는 에든버러와 런던에서 의학을 배운 뒤 인도에서 외과의로 활동하던 의사였다.¹⁴⁾ 1835년에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폐렴의 기침 증세가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악화된다고 생각해 커다란 가슴기를 제작했다. 이 가슴

¹²⁾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웹 사이트 “마스크의 역사와 인류학”에 수시로 추가하고 있다.

¹³⁾ 역주: 3절에서 등장하는 복면(福面)은 마스크를 뜻하는 복면(覆面)과 발음이 같으나 세부 사항이 다른 물건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복면(福面)처럼 한자를 병기해 표기했다.

¹⁴⁾ David Zuck, “Jeffreys, Julius,”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David Zuck, “Julius Jeffreys: Pioneer of humidification,” *Proceedings of the History of Anaesthesia Society* 8b (1990), 70-80; Andrew Marshall and Judith Marshall, *Striving for the Comfort Zone: A Perspective on Julius Jeffreys* (Windy Knoll Publications, 2004).

기는 콜레라 역학 연구로 유명한 존 스노우(John Snow, 1813-1858)가 클로로포름 흡입기를 개발하는 기초가 됐다.

이후 제프리스는 레스퍼레이터를 개발했고 1836년에 특허를 취득했다[그림 6].¹⁵⁾ 이는 현재의 마스크와 같은 모양의 기기로, 코와 입을 가리며 안에는 격자 모양의 금속이 들어있는 물건이었다. 금속 부분의 존재로 인해 레스퍼레이터 안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보존되어서 숨을 쉴 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되는 원리를 이용했다. “환자를 위한 마스크”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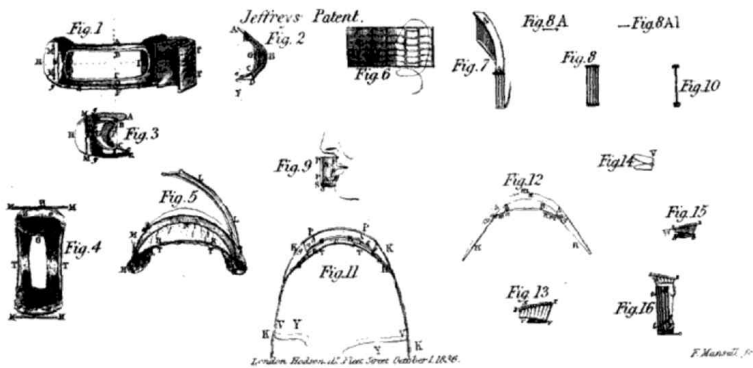


그림 6 제프리스의 “레스퍼레이터”.

의사를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레스퍼레이터는 다른 의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 덕분에 제프리스는 1841년 왕립협회(Royal Society)의 펠로우가 될 수 있었다. 레스퍼레이터는 1862년 제2회 런던 만국박람회에도 전시되었다.

또 앞서 소개했듯이, 광고에는 호흡기 계통 질병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통해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환자를 위한 마스크”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예방을 위한 마스크”도 이때부터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레스퍼레이터가 일본에 소개되었던 것은

¹⁵⁾ *The Repertory of Patent Inventions, and Other Discoveries and Improvements in Arts, Manufactures, and Agriculture* 5 (1836), 211 - 219.

늦어도 1877년(메이지 10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19년 후 소설가 이즈미 교카(泉鏡花)(1873-1939)의 작품 “요괴 아내(化銀杏)”(1896년)에 나오는 “호흡기(呼吸器)”는 제프리스의 장치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작중에는 도쿄의 대학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토키히코(時彦)가 위장병과 폐질환 치료를 위해 수년 만에 가나자와의 집에 돌아갔을 때의 일을, 열다섯 살 연하의 아내 테이(貞)가 회상하는 대목이 있다. 토키히코는 “몰라볼 정도로 아위었”고, 색안경을 쓰고 있었다.¹⁶⁾

… 그리고 저기 그 호흡기(呼吸器)인가 뭔가 하는 걸 입에 밀착해서 …

그리고 테이는 “그 모습이 웃기게 보였던 탓”에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색안경은 도쿄의 “매섭고 건조한 먼지바람을 견디기 위해” 썼고, “호흡기는 폐병을 고치기 위한 약으로 쓰고 있다”고 하며, “(위생을 위한) 수염”을 길러 “폐병의 별레”를 방지한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저기 그 호흡기인가 뭔가”라는 표현에서부터 “호흡기(呼吸器)”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나 아직 일반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 엿보인다.

이 절의 마지막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19세기 물건을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다. 19세기의 중반 무렵 이와미 은광(石見銀山)의 기록에 남아있는 “복면(福面)”이다[그림 7].¹⁷⁾ 이 복면(福面)은 코 부분에 매실장아찌(우메보시)를 넣고, 금속 틀에 껴매 붙인 비단천에는 감즙을 적신 것이다. 매실장아찌의 산

16) 이즈미 교카, “化銀杏”, 『青年小説』(文芸俱樂部 第二卷 第二編 臨時増刊) (博文館, 1896), 1142, 1314.

17) 나리타 겐이치(成田研一), “이와미 은광 광산병 대책 『제생비언』의 ‘증기약’ 및 ‘복면’에 대해(石見銀山鉱山病對策「濟生卑言」の「蒸氣藥」・「福面」について)”, 『藥史學雜誌』 52:1 (2017), 64-170; 도야 요시오(鳥谷芳雄), “구 아베가 주택 발견 「복면지도」—제작자와 『제생비언』의 관계에 대해(旧阿部家住宅發見の「福面之図」—作者と「濟生卑言」との關係をめぐって)”, 『古代文化研究』 19 (2011), 153-159. 미우라 도요히코는 1826년 아키타의 오쿠조 금광에 있었던 “복면과 산물(覆面と申物)” 기록으로부터 금광에서도 이 복면이 쓰였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물건인지는 알 수 없다. 미우라 도요히코(三浦豊彦), “노동위생학사 서설 제6부: 도쿠가와 시대의 연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노동위생학과 동시대 유럽 노동위생학 (3) (勞働衛生學史序説 第六部 徳川時代の煙毒を中心とした日本の労働衛生學と同時代のヨーロッパの労働衛生學(3))”, 『勞働科學』 52:8 (1976), 445-457. 미야 다쿠에 대해서는 아마노 쇼시(天野初志), “막부 말기 지사 미야 다쿠(幕末の志士宮太柱)”, 『笠岡市史』 제2권, (가사오카시, 1989), 599-612.

성 성분으로 인해 분진이 붙기 어려웠으며 입에서 타액이 분비되어서 목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미야 다추(宮太柱, 1827-1870)의 『제생비언(濟生卑言)』(1858년)에서는 저자 자신이 갯도에 들어가서 그 효과를 검증했다고 한다. 도야 요시오(鳥谷芳雄)에 따르면 이와미 은광 지역의 관리인 아베 고카쿠(阿部光格)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7>이 이 복면(福面)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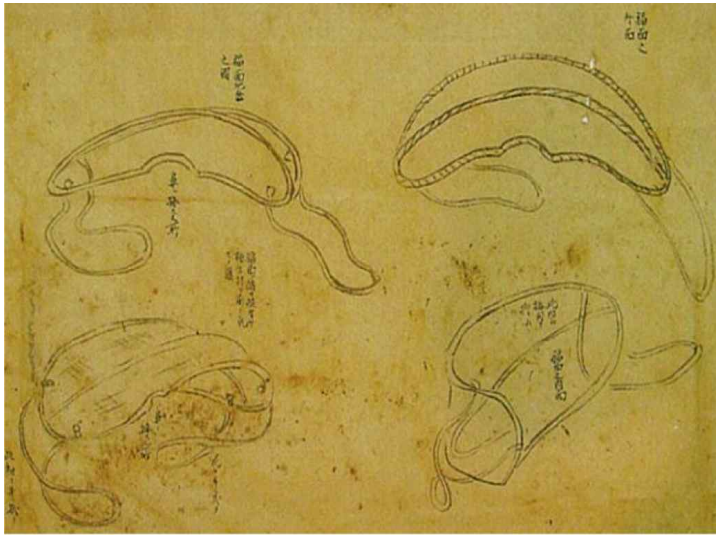


그림 7 “복면지도(福面之図)”, 개인 소장 (도야 요시오 2011).

여기서 소개한 19세기의 마스크, 즉 제프리스의 레스퍼레이터나 복면(福面) 모두, 마스크 안에 금속이나 매실장아찌를 넣는다는 점에서 코와 입을 가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코와 입을 가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의 등장은 ‘세균학’이라는 학문의 등장 이후의 일이었다.

4. 수술, 페스트, 독감

의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은 1897년 브레슬라우 병원(당시 독일, 현재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의 외과 의사 요한 미쿨리치-라데츠키 (Jan Mikulicz-Radecki,

1850-1905)로부터 시작되었다.¹⁸⁾ 브레슬라우대학의 세균학자이자 위생학자인 칼 플뤼게(Cal Flügge, 1874-1923)가 “비말 감염”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러한 지식에 기초해 미쿨리치-라데츠키가 수술 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다. 비말 감염 개념을 제시한 플뤼게는 1885년부터 로베르트 코흐와 함께 *Zeitschrift für Hygiene und Infektionskrankheiten*(위생·감염증잡지)의 편집인을 맡기도 했다.

1910-1912년 만주의 페스트 유행으로 의료 종사자가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행위가 확산되었다.¹⁹⁾ (이 글이 출판된 이후 1910-1912년의 마스크 착용이 1899년 일본의 페스트 유행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임을 확인했다) 이 마스크는 말레이시아의 페낭 출신으로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한 중국인 우렌더(伍連德, Wu Lien-teh, 1879-1960)가 고안한 것으로, 1911년 4월에 우렌더와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를 포함한 11개국 대표자에 의해 개최된 “만국페스트회의(万国ペスト會議)”에서 의료종사자의 복면기(覆面器) 착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2. 호흡에 따른 전염 예방을 위해 위생대원은 정해진 복면기(覆面器)를 착용할 것.
3. 복면기는 삼각 모양 거즈에 면을 넣은 간단한 것도 가능하나 작업 시마다 폐기 또는 소각할 것.²⁰⁾

감염 예방을 위한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은 1918-1920년의 독감 유행을 계기로 시작되었다.²¹⁾ 당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스

¹⁸⁾ John L. Spooner, “History of Surgical Face Masks,” *ARON Journal* 5 (1967), 76-80; Thomas Schlich, “Asepsis and Bacteriology: A Realignment of Surgery and Laboratory Science,” *Medical History* 56 (2012), 308-334.

¹⁹⁾ Christos Lynteris, “Plague Masks: The Visual Emergence of Anti-Epidemic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Medical Anthropology* 37 (2018), 442-457; Jerzy Kuczkowski, Czesław Stankiewicz, Andrzej Kopacz, Waldemar Narozny, Bogusław Mikaszewski and Kamil Drucis, “Jan Mikulicz-Radecki (1850-1905): Pioneer of Endoscopy and Surgery of the Sinuses, Throat, and Digestive Tract,” *World Journal of Surgery* 28 (2004), 1063-1067.

²⁰⁾ 관동도독부 임시방역부(關東都督府 臨時防疫部), 『메이지 43, 44년 ‘페스트’ 유행지(明治四十三、四年 「ペスト」 流行誌)』 (1912), 372.

²¹⁾ Alfred W. Crosby, *America's Forgotten Pandemic: The Influenza of 1918*,

크 착용 조례를 실시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었다.

1918년 12월에 개최되었던 미국 공중위생협회 특별위원회에서도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반 시민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있었다.

[마스크의 착용을] 시민 전부에게 강제하는 조치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에 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의 실행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시민 각자가 자신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용 방법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²²⁾

이렇게 마스크는 수술실에서 거리로 확산되어갔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마스크를 써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후 백여 년에 걸쳐 논의가 지속되었다.²³⁾

5. 일상 속의 마스크

1919년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계기로 점차 마스크가 보급되었다. 1933년 유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91-120.

²²⁾ Special Committee of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Influenz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71 (1918), 2068-2073; 내무성 위생국(內務省衛生局) 편, 『유행성 호흡기 질병(流行性感冒)』(內務省衛生局, 1922), 77. 유사한 논의는 일본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의 “독자의 소리(讀者の聲)”에서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의 실험 결과 [마스크의] 효과가 작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교수들 역시 마스크의 효과가 전혀 없음을 단언할 수는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다(1920년 10월 2일, 4면).

²³⁾ 호리이 미즈토시(堀井光俊), 『마스크와 일본인(マスクと日本人)』(秀明出版會, 2012); 다카자와 츠요시(瀧澤毅), “마스크 착용에 의한 인플루엔자 예방의 근거는 있는가? —EBM에 근거한 검토(マスク着用にインフルエンザ予防のエビデンスはあるか?—EBMによる検討)”, 『千葉科學大學紀要』 3 (2010), 149-160; 오오즈기 고이치(大槻公一), 다카쿠와 히로키(高桑弘樹), 츠네쿠니 료타(常國良太), 이노우에 미즈에(井上瑞江), 야부타 도시요(戴田淑子), 나카무라 야스노리(中村保紀), 마츠시타 미키(松下美紀), 야마나 히데아키(山名英明), “인플루엔자 대책, 특히 고기능 추가 마스크의 유용성(インフルエンザ対策、特に高機能付加マスクの有用性)”, 『京都産業大學先端科學技術研究所所報』 9 (2010), 103-117.

메노 쿠사쿠(夢野久作)의 소설 『암흑공사(暗黒公使, ダーク・ミニスター)』에서는 “근래 대유행하고 있는 검정 입마개(口覆)를 썼다”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²⁴⁾

이후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²⁵⁾ 예를 들어 1930년대 미에(三重)현 우지야마다시(宇治山田市, 현재의 이세시(伊勢市))에서 자란 오쿠무라 미사코(奥村操子, 1929-) 씨는 바람이 강해 흙먼지가 휘날리는 날에는 할머니인 미나(みな, 1888-1964) 씨가 만들어 준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외출했다고 한다. 미나는 심상소학교(역주: 1945년까지 일본 학제에 존재했던 기초 교육 과정, 현재의 소학교)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잡지 『부인의 친구(婦人の友)』나 『하니모토코 저작집(羽仁もと子著作集)』 등을 읽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고 한다. 한편 미사코 씨 여동생의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미에현 다키(多気)에서 자란 MM(1927-)은 추운 아침에 중학교에 통학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탔다고 한다. 검정색 마스크일 때도 있었고, 하얀색 거즈 마스크일 때도 있었다. 우지야마다시 등지에서 소학교 교장을 맡았던 스미다 마사오(住田正郎, 1902-1992) 씨도 추운 아침에 자전거 통근을 위해 검정 마스크를 썼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호게츠 리에(宝月理恵) 씨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경성 부에서 자란 T 씨(1925-)가 방한용으로 여러 가지 색의 거즈 마스크나 검정 색의 구멍이 뚫려있는 마스크를 썼던 기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겨울에는 거즈 마스크나 벨벳 재질의 검정색이나 빨간색 마스크도 팔고 있었다. 공기가 통하는 형태에 소재는 인조가죽이었다. 위도를 생각하면 경성은 니가타 현 부근이므로 당여하게도 겨울 기온이 낮았다. 또, 석탄이나 연탄으로 온돌이나 난로를 데우고 있었기에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고 있다가 벗으면 [얼굴에] 장쥘린(張作霖)의 수염 같은 흔적이 남아서 웃음이 낫던 기억이 있다.²⁶⁾

24) 유메노 쿠사쿠(夢野久作), 『暗黒公使』(新潮社, 1933).

25) 이하, 2020년 3월에 필자의 친척인 오쿠무라 미사코(奥村操子), 스미다 쿠미코(住田久美子), 스미다 요시히사(住田芳久), 미기타 겐조(右田研三), 미기타 마사코(右田昌子), 미야코 요코(都洋子), MH, MM, 와타나베 나미(渡辺奈美), 와타나베 히로오(渡辺紘男)와 전화로 진행한 인터뷰에 근거한다.

이렇듯, 원래부터 호흡 보호나 감염증 예방을 위해 사용되었던 마스크가 점차 방진이나 방한을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되어갔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편이다. 1960년대의 대기오염, 1980년대 이후에 유행한 삼나무 화분증(花粉症) 등으로 인해 거리에서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있어도 위화감이 없었다. 최근에는 패션을 위해 착용하는 사람도 있고 중학교 등지에서는 수업 중에 착용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마스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코와 입만을 가리는 물건의 희귀성과 함께 마스크의 다양한 사용법을 개관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코와 입만을 가리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금속을 포함한 검정 마스크는 19세기에 폐질환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용도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게 되었다. 한편 미생물학의 발전을 계기로 1897년부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하얀색 마스크는 의료 종사자나 일반인에게 감염병 대책으로, 일상에서는 방한이나 패션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마스크와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다양해져 가고 있다.²⁷⁾

번역: 김하정(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26) 호게츠 리에(宝月理恵), 『근대 일본 위생의 전개와 변용(近代日本における衛生の展開と受容)』(東信堂, 2010), 245. 호게츠는 박사 논문 작성 과정에서 쇼와시대 전전기(戰前期) 소학교 교육을 받은 19명을 인터뷰했는데, 여기서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호게츠, 필자와의 이메일, 2020년 3월 15일).

27) 감염병 대책을 위한 마스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모아둔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유야사 히데미치(湯淺秀道), “마스크 문헌집 2020(マスク文獻集 202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H8pii6imRCczG1G7g4PgFoDD4aeK9BVNughoCBOo/>).